

#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경제 동반자!

지역화폐가 만드는 부산경제 나비효과  
쓰면 쓸수록 고객에게 돌아오는 캐시백효과  
받으면 받을수록 가맹점에겐 수수료 절감효과  
55년 지역은행, 부산은행이 부산시와 함께  
더 든든한 지역경제의 날개를 만들겠습니다

**부산은행이 지역화폐 동백전과  
함께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참조하시거나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471 (심의일자 2022. 04. 21) | 유효기간 2022. 04. 21 ~ 2023. 03. 31

# 영화부산 FILM BUSAN

2023. 겨울호  
VOL.45

이슈  
선택받는 콘텐츠,  
원천 스토리 발굴에서부터

부산 촬영해 보고서  
세트 촬영부터 로케이션 촬영까지,  
부산을 찾은 <서울의 봄>

기획  
영화·영상산업의 스테디셀러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부산영상위원회 소식지  
[www.filmbusan.kr](http://www.filmbusan.kr)





이 겨울, 봄바람 분다. 1979년 12월 을씨년스러웠던 공기가 올겨울 극장가에 훈풍을 몰고 온다. 11월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이 날마다 관객 수를 늘리며 장기 흥행 기대감을 높인다. 500만 고지는 이미 훌쩍 넘었다. 봄바람은 쌓인 눈 녹이며 '술술' 부는 법인데, <서울의 봄>은 태풍급이다. 44년 전 쿠데타의 밤을 스크린에서 마주한 관객은 짜증이 난다. 불의가 승리하는 장면을 알고도 봐야 하는 관객은 화가 치민다. 분노는 최고의 바이럴 마케팅이 된다. <서울의 봄> 관객은 저마다 SNS에서 '심박수 챌린지'를 벌이고, 리뷰로 공분을 쏟아낸다. 관객 절반 이상이 MZ세대라고 한다. 12·12사태를 경험하지 않은 MZ 관객이 영화를 본 후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 셈이다. <덧글부대> 개봉을 앞둔 영화적순간 김유경 대표는 "요즘 화제가 되는 작품은 SNS를 통해 콘텐츠가 재생산되면서 퍼진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작품은 사람들이 그 이슈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더 찾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이 딱 그렇다.

로케트필름 박은영 기획이사, 고즈닉이엔티 윤승일 상임이사, 영화적순간 김 대표, 엠라인디스트리뷰션 손민경 대표 그리고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박세리 실장까지 최근 한자리에 모였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재생산이든 창작작이든 관객의 자발적 욕구를 자극할 스토리를 어떻게 발굴해야 할지 머리를 맞댔다. 어떤 콘텐츠가 선택받고, 어떤 스토리가 확장성을 지니는지 영화·영상산업 각 분야 전문가가 살펴봤다. 서로 근황을 물으며 수줍게 시작한 대담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예전의 흥행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다. 다만 원천 스토리의 생명력과 진정성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담 전문은 이번 호 이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12월이다. <교섭>으로 문을 연 올해 극장가는 <노랑: 죽음의 바다>로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겨울 봄바람'이 내년 봄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번 호는 <영화부산>의 마지막이다. 2002년 봄에 첫 장을 펼친 이후 지금까지 모두 85권을 냈다. 한 차례 휴간과 복간을 반복한 적이 있기에 이번 폐간도 언젠가 봄이 오면 반복될지 모른다는 희망은 남겨두려 한다. 봄을 기다린다. 20년 넘게 <영화부산>과 함께한 수많은 필진, 열심히 읽어준 독자께 감사 인사드린다.

편집책임 배주형

<b>FILM in BUSAN</b>		
부산 촬영해 보고서	영화 <서울의 봄> 제작현장	<b>6</b>
배우부산	영화 <서울의 봄> 주연배우 정우성	<b>12</b>
<b>지금, 여기, 로케이션</b>	용호별빛공원 & 캠프 국유재산 in BUSAN	<b>16</b>
<b>ISSUE BUSAN</b>		
이슈	선택받는 콘텐츠, 원천 스토리 발굴에서부터	<b>28</b>
기획	영화·영상산업의 스테디셀러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b>34</b>
필드 인터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남희진 본부장	<b>40</b>
<b>칼럼</b>		
포커스온OTT	평면의 알: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	<b>44</b>
영화관에 간 심리학	모든 농담은 하나의 작은 혁명이다: <극한직업>	<b>46</b>
<b>필름리뷰</b>	<검치호> <괴물> <거미집>	<b>48</b>
<b>임수연 기자의 산업 읽기</b>	극장가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	<b>52</b>
<b>인포그래픽</b>	여기 어디? <박하경 여행기> 속 부산	<b>54</b>
<b>BFC뉴스</b>	부산영상위원회 주요 소식	<b>56</b>



# FILM in BUSAN

동래구, 남구, 강서구, 사상구, 중구 등  
부산 곳곳에 1979년을 재현한 <서울의 봄>은  
개봉 14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023년 끝자락에 한국 영화의 '봄'을 활짝 피웠고

김성수 감독의 <비트>(태양은 없다)에서  
찬란한 청춘(靑春)을 보여준 배우 정우성은  
<아수라>를 지나 찾아온 <서울의 봄>에서  
미처 피지 못한 그날 봄(春)의 이야기를 전한다.

06

부산 촬영해 보고서

세트 촬영부터 로케이션 촬영까지,  
부산을 찾은 <서울의 봄>

12

배우부산

진정성을 담은 배우,  
영화 <서울의 봄>의 정우성



# 세트 촬영부터 로케이션 촬영까지, 부산을 찾은 <서울의 봄>

## 영화 <서울의 봄> 제작현장

인터뷰 글 이우빈 씨네21 기자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미디어코프

### SUMMARY

2022년 부산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3,000만 원 지원)

감독 김성수  
출연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외

### 장르 드라마

누적 촬영일 수 총 20일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이종만 가옥,  
영주고교 부근 도로, 명륜역 부근 도로, 대저 1동 고급주택,  
대연 5동 고급주택, 구)사상경찰서

<서울의 봄>(2023)은 부산의 봄이기도 하다. 영화의 시공간적 배경은 1979년 11~12월 무렵의 서울이다. 1979년의 실제 12·12 사태를 각색했다. 전두광(황정민 분) 보안사령관이 하나회 일당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한다. 그러자 이태신(정우성 분) 수도경비사령관이 그들의 야욕에 맞선다. 이에 영화 속 모든 이야기는 서울권의 수도경비사령부, 육군본부, 행주대교 등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서울의 봄> 속의 많은 주요 장면은 사실 부산에서 촬영됐다. 전두광과 하나회가 자리 잡았던 30경비단 작전실, 이태신 장군이 진두지휘했던 수도경비사령부 상황실, 전두광과 이태신의 자택 등을 모두 부산에서 찍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무려 20회차의 프로덕션이 부산 곳곳의 공간들과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것이다. <서울의 봄>과 부산의 연을 자세히 되짚기 위해 <서울의 봄>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이용수 PD와 인터뷰를 가졌다. 더하여 영화의 핵심 스태프인 이모개 촬영감독, 이성환 조명감독, 장근영 미술감독, 정재훈 VFX 슈퍼바이저가 나눈 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01**  
**1970년대의 공기가  
살아 있는 부산**

“근현대사를 온전히 찍을 수 있는 곳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다. 그렇지만 부산에는 아직 근현대 배경의 핵심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 담벼락, 건물, 조경 등이 있다.” 이용수 PD의 말처럼 1979년의 공기를 되살리기 위

해 <서울의 봄>이 찾은 곳은 부산이었다. 전두광의 계약에 의해서 이태신이 정병주(정만식 분) 특전사령관, 김준엽(김성균 분) 헌병감과 방문했던 연희동 요정 골목은 부산 온천동에서 촬영됐다. 이용수 PD는 “온천동과 대연동 일대는 시대극의 고급 주택단지라 많이 활용”된 곳임을 설명하며 “요정 내부는 세트 촬영까지 고려하던 상황이었는데, 1970년대에 유행했던 우드톤의 색감이 집 내부까지 보존된 곳을 대연동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리고 <서울의 봄> 속 무교동 거리도 부산 중앙동의 모습이었음을 밝혔다. “중앙동에 남은 오래된 건물이나 기둥들을 잘 활용해 1970~80년대를 그릴 수 있었다.”(이용수 PD)

**#02**  
**기장과 대저동에서  
찾은 장군들의 집**



“그 시대에 있을 법한, 그리고 그 인물이 살았을 법한 현실적 공간을 택했다.”(이용수 PD) 이태신과 전두광의 집은 인물들의 기질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우선 이태신 장군의 자택은 기장군에 있는 이종만 가옥에서 촬영됐으며, 이태신의 인간적 면모를 강조한다. “이태신과 아내가 자택에서 밥 먹는 장면은 굉장히 따뜻한 연출했다. 창문에 성예를 그려 넣거나 주전자에서 오르는 김을 추가했다.”(정재훈 VFX 슈퍼바이저)



하나회 멤버들이 비밀리에 모였던 전두광의 자택은 부산 대저동에서 촬영됐다. 전두광이 하나회 군인들을 강압적으로 설득하며 반란을 작당했던 곳이다. 여기서 전두광은 갑자기 방의 불을 끄며 공간의 위화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장면에 대해 이성환 조명감독은 “전두광은 빛을 잘 이용하는 캐릭터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할 때는 불을 그냥 꺼버린다. 자기가 빛 앞에 나와야 할 때와 숨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03**  
**반란군의 탐욕이  
그려진 공간**



전두광과 이태신의 대조적인 차이는 그들의 자택뿐 아니라 그들의 일터에서도 발견된다. 전두광과 반란군은 제30경비단에서, 이태신과 진압군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주로 활동한다. 이 두 공간 모두가 해운대구의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먼저 전두광과 하나회가 사용했던 제30경비단 작전실은 말 그대로 탐욕의 공간이었다. “야욕 있는 악당들의 욕망을 강조하기 위해 어둡고 붉은빛을 썼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보이도록 그들의 얼굴을 기름지고 번들번들하게 표현했다.”(이성환 조명감독) 더하여 장근영 미술감독은 “공간을 아주 붉은 우드톤으로 만들어서 탐욕의 의미를 과감하게 부여”했고 “천장의 붉은 물딩과 격자 패턴으로 그들의 깊은 욕망”을 드러냈다. 하나회 일당이 군의 연락망을 은밀히 감청하던 30경비단 정보실도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함께 촬영됐다. 전두광 일당이 있는 작전실과 마찬가지로 붉은 톤의 조명과 공간의 갑갑함을 강조했다.



**#04**  
**이태신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이태신 사령관이 자리한 수도경비사령부 상황실은 완전히 대조적이다. “차가운 빛을 써서 칙칙하고 외로운 느낌을 강조”(이성환 조명감독)했으며 “따뜻한 우드톤과 앰버톤을 사용”(장근영 미술감독)했다. 미술, 촬영 방식의 세밀한 고민을 통해 이태신의 상황과 감정에 관객이 몰입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상황실 공간을 유리 벽으로 나눠 이태신이 고립된 느낌”(장근영 미술감독)을 표현했다. 이에 김지용 촬영감독은 “전두광과 달리 사람들로 부터 동떨어진 상황을 강조하면서 관객이 이태신 장군을 더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게 만들었다.”라고 촬영 의도를 설명했다.

**#05**  
**부산의 공간과 시민들이 만든 <서울의 봄>**

부산에서의 촬영엔 또 다른 이점들이 있었다. 이용수 PD는 “부산은 영화도시라는 인식 덕인지 시민들의 촬영 협조가 무척 좋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밝히며 “중앙동 거리 촬영도 상인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주말 통제가 가능”했음을 회상했다. 덧붙여 “촬영진을 반겨주는 시민분들이 있으셨기에 제작진도 부산을 좋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운송 네트워크가 예전에 비해 무척 좋아졌고 부산엔 관련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당연히 장비 및 물자, 인력 수급에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지역 인센티브의 이점 덕에 세트 촬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1979년의 시공간을 그리기 위해 부산의 공간과 여건, 심지어 시민들의 너른 협조까지 준비돼 있던 것이다. 이에 힘입어서 <서울의 봄>은 천만 관객을 향해 달리고 있다.

\* 이모개 촬영감독, 장근영 미술감독의 말은 <씨네21> 1434호 [1212 군사 반란은 쉽게 재현되지 않았다], <서울의 봄> 제작기(임수연, 이우체)에서 직접 인용, 이성환 조명감독, 정재훈 VFX 슈퍼바이저의 말은 <씨네21> 취재 원본에서 부분 발췌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우빈**

<씨네21> 취재 기자. 문예지 <쿨투라>와 비평 웹진 <코아르> 영화평론가, 부산권 영화잡지 <섬씨 233> 편집장, 부산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매체에 영화 기사와 평론을 기고 중이다. elancia@cinet1.com





# 진정성을 담은 배우, 영화 <서울의 봄>의 정우성

## 영화 <서울의 봄> 주연배우 정우성

인터뷰·글 이원 국제신문 기자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팬데믹 이후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2023)의 중심에는 정우성이 있다. 자신을 '청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준 영화 <비트>(1997)부터 <태양은 없다>(1999), <무사>(2001), <아수라>(2016)에 이어 다섯 번째로 김성수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정우성은 이전 어느 영화보다 진정성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에 호응하듯 <서울의 봄>을 팬데믹 이후 겨울 개봉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김 감독님이 <서울의 봄>으로 많은 분들께 호응을 얻고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기분 좋고 당연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자신보다 김성수 감독에게 공을 돌리는 정우성을 만나 <서울의 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정우성, <서울의 봄>에 합류하다

인터뷰를 위해 마주 앉은 정우성은 먼저 "<서울의 봄>은 사실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룬 얘가지 않는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김 감독님의 뛰어난 연출력으로 연출자의 의도대로 영화를 바라봐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도가 된다"라며 <서울의 봄>을 편견 없이 바른 시선으로 관람하는 대다수의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에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주축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반란을 소재로, 수도 서울에서 벌어진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렸다. 영화에서는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으며, 정우성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는 군인의 사명에 충실한 인물이자 반란군인 전두환 무리에 맞서 고군분투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이태신 역을 맡아 열연했다.

데뷔 30년 차로, <서울의 봄>에서 역대급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평을 받는 정우성이지만 출연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캐스팅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나한테 오겠구나'라는 직감이 들었다. 김 감독님이 기 때문에 일단 50%는 마음이 기울었지만, 당사가 <헌트> 촬영이 끝났을 때였다. <헌트>의 국정원 요원과 <서울의 봄>의 군인 역은 분명 다른 캐릭터이지만 어떤 대척점에 두고 있는 인물이라는 외피적 공통점 때



문에 관객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좋은 배우 많은데 다른 배우 찾으시면 어떨겠냐고 말씀드렸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런데 김 감독은 '너 아니면 영화를 앞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정우성은 "김 감독님에게는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귀에 안 먹히더라"라며 웃었다.

### 정우성, 이태신에 진정성을 담다

분노유발자인 전두광 역의 황정민에 이어 그에 맞서는 이태신 역으로 <서울의 봄>에 참여하게 된 정우성은 캐릭터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재미있는 것은 김 감독이 참고하라며 정우성이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인터뷰한 영상을 보냈다는 것이다.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인데, 이태신만은 가장 허구의 인물이라서 정말 막연했다"라는 정우성은 "그런데 김 감독님이 주신 그 영상들은 인터뷰에 임하는 정우성의 자세를 생각하라는 의미였던 것 같았다"라며 이태신에게 진정성을 갖고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의감, 이성적 사고를 엿을 수 있었던 이유를 떠올렸다.

그리고 역시 정우성에게 또 하나의 부담은 전두광을 연기한 황정민이었다. 전두광 자체가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강한 캐릭터고, 황정민이 악역을 연기할 때 더욱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우성은 "대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자 '타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 부담이 엄청났다. 하지만 정민이 형이 만드는 전두광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받는 에너지가 대단할 것이고, 이태신을 잘 해냈을 때 두 인물의 대립감이 굉장히 쫘쫘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부담은 배우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며 황정민과의 연기 호흡이 즐거운 부담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황정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서로 이태신과 전두광이 된 느낌을 받았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극 중 이태신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반란군의 서울 진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부대들의 지휘관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부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스스로 '앵벌이 연기'라고 칭하는 이 장면에 대해 정우성은 "이태신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극복하려는 사람이다. 답답해서 화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다.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내몰리지만 자신의 직위와 책임감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돌파해야 할지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고민한다"라며 "제가 이태신을 봐도 답답했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관객분들도 '혼자 고군분투하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신이 멋지다"라고 표현해

"이태신이 멋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직 본분과 책임을 다하려는 이태신을 만들려고 했다!"



주시는데, 사실 이태신이 멋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직 본분과 책임을 다하려는 이태신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우성이 육체적으로 고군분투한 장면도 있다. 후반부에 100여 명의 수도권경비사령부 군인들과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돌진하다 대치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에 촬영했는데, 정우성은 높은 바리케이드와 위험한 철조망을 계속 넘어서 전두광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는 "김 감독님이 농담으로 '우성이 키 크잖아. 잘 넘어가겠지 뭐. 그래서 만들었어'라고 하시더라"라며 웃었다. 이어 "철조망은 장갑을 꺾어도 가시에 찔리고, 옷도 찢기고 했다. 마치 이태신이라는 사람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걷는 것 같았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느리지만 곳곳하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말이다. 이태신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구현된 것 같다"라고 감동적인 장면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의 봄>의 이태신 캐릭터가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흘러서 거리를 두고 봐야 저에게 어떤 의미의 캐릭터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우성. 지난 30년간 진정성을 갖고 연기를 대하는 자세를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그이기에 앞으로 걸어갈 30년 또한 응원한다.



### 이원

전 영화월간지 <프리미어> 수석 기자, 전 영화웹진 <키노> 편집장, 전 영화주간지 <무비워크> 수석 기자, 현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 어느덧 영화기자 생활을 한 지 27년이 됐다. 여전히 영화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영화관이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다. 그리고 여전히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latehope@naver.com



# 핫-로케이션

## Hot Location

용호별빛공원  
[부산 남구 용호동 5-5]

용호별빛공원은 2019년 광안대교 러시아 선박 충돌 사고 후 폐쇄된 용호부두를 2021년 7월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개장했다. 용호별빛공원에서는 부산의 자랑인 해운대와 광안리, 그리고 광안대교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여름에는 야외 물놀이, 가을에는 부산불꽃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원이다. 게다가 별빛공원의 이름에 걸맞게 밤이 되면 야경명소로 변신한다. 이기대수변공원의 산책로와도 이어져 있어 부산의 해안 비경을 담아가기 딱 좋다. [#용호별빛공원](#)

#친수공원 #야경명소  
#개방감 #오픈세트

### 로케이션 매니저's Tip

용호별빛공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넓게 트인 개방감이 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축제와 행사장면을 연출하기 좋다. 오픈세트를 지어 촬영을 진행하기에도 적합한 규모로 이미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 뉴-로케이션

## New Location

캠코 국유재산 in BUSAN

[구. 세우관 / 구. 지방식품의약청 / 수안동 옛 유리공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8월 체결한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영상 촬영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제공한다. 이에 최근 캠코 쪽에서 전달한 따끈한 로케이션 세 곳을 빠르게 소개 드린다. 먼저 2020년까지 세무공무원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5층 건물 구. 세우관이 있다. 외관의 빨간 벽돌이 특히 인상적인 이곳은 기숙사나 학교로 구현하기에 현실감이 넘치는 장소다. 다음은 2020년까지 부산지방식품의약청의 연구동 건물로 사용되던 구. 지방식품의약청이다. 전체 5층 건물로 기존 용도 특성상 내부 중앙계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 실험 공간 등으로 연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안동 옛 유리공장을 소개한다. 이곳은 이전에 유리공장으로 사용되던 폐건물로 2층 규모다. 건물 1층은 양면이 뽕 뚫려있다. 벌써 장편영화가 촬영을 다녀간 활용도 만점 로케이션이다. 필터링

#폐건물 #구. 세우관

#구. 부산지방식품의약청 #수안동 옛 유리공장

### 로케이션 매니저's Tip

문의가 가장 많은 폐건물들의 집합소다. 비어있는 공간이기에 원하는대로, 필요한대로 어떠한 세팅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만능 로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수안동 옛 유리공장





구. 세우관



구. 부산지방식품의약청



구. 세우관



구. 부산지방식품의약청



# ISSUE      BUSAN

〈무빙〉은 국내 시장에서 고전하던  
글로벌 OTT 플랫폼을 기사회생시켰고  
기대만큼 회복세를 찾지 못하던 한국 영화는  
〈서울의 봄〉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바야흐로 '이야기'의 시대다.  
뜨겁게 달아오른 콘텐츠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우리만의 '스토리'를 들어본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OTT 시장으로 시작된  
영화·영상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개관 22년 동안 굳건하게 달려온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그 10000일의 이야기도 만나 보자.

28  
이슈

선택받는 콘텐츠,  
원천 스토리 발굴에서부터

34  
기획

영화·영상산업의 스테디셀러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40  
필드 인터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남희진 본부장



# 선택받는 콘텐츠, 원천 스토리 발굴에서부터

모더레이터 박은영 로케트필름 기획이사  
 패널 윤승일 고즈닉이엔티 상임이사  
 김유경 영화적순간 대표  
 손민경 엠라인디스트리뷰션 대표  
 박세리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실장  
 정리 <영화부산> 편집팀



즐거보던 웹툰이, 웹소설이, 고전문학과 게임까지. 다양한 원천 소스가 영화나 드라마로 재탄생 되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다름 아닌 스토리 원천 IP 발굴이었다. 유명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콘텐츠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콘텐츠 시장의 핵심 무기가 되는 것은 단단하고 본연의 생명력이 넘치는 스토리다. 빠르게 흘러가는 트렌드와 이슈 속 빛나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선택받는 콘텐츠란 무엇일까.

**박은영** 대담 진행을 맡게 된 로케트필름 프로듀서 박은영이다. 본격 대담에 앞서 패널분들의 현재 활동 영역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근황 소개를 먼저 들어보고 싶다.

**윤승일** 현재 영화, 드라마, 뮤지컬까지 영상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원작을 개발하는 고즈닉이엔티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고즈닉이엔티는 종합 콘텐츠 기업인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의 IP 개발 부문으로, 우리 회사는 주로 소설이나 웹소설을 출간하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CP사(Contents Provider)이기도 하며, IP 개발사이기도 하다. 올해는 <행복배틀>이라고, 채널 ENA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저희의 원작으로 개발됐고, 내년엔 역사소설 <직필>을 원작으로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이다.

**박세리**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실장을 맡고 있다. 실장은 올해가 처음이고, 이전 10여 년간 마켓에서 아시아 프로젝트마켓(APM)과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해 왔다. 사실 명칭과 세부 역할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작년부터 시작한 부산스토리마켓이라는 행사를 통해 IP 행사를 처음 런칭한 것으로 아실 수도 있지만, 2012년도부터 시작한 '북투필름(Book To Film)', 이후 확장한 'E-IP마켓(Entertainment Intellectual Property Market)'을 통해 계속해서 IP를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다.

**손민경** 2008년 해외배급을 전문으로 하는 엠라인디스트리뷰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지금 회사는 설립 10년이 넘었고, 400편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 상업작품보다는 카파(KAFA, 한국영화아카데미) 작품이나 독립작품, 영화제 출품작들을 많이 맡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작품 재개봉이나 리메이크 판권 판매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대담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해외 배급 판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유경** 사이더스라는 회사에서 8년 정도 프로듀서를 하다가 지금은 영화적순간이라는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두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 작품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한국이 싫어서>와 내년에 개봉 예정인 <땃글부대>다. 두 작품 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 선택받는 콘텐츠란? - 관객과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다

**박은영** 먼저, 지금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작가나 창작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주제다. 각자 지금 시대에 선택받는 콘텐츠는 무엇이라 보고 있나.

**김유경** 지금은 이전보다 후킹 포인트(hooking point)가 확실한 작품들이 반응이 온다. 화제성을 모을 무언가가 분명한 콘텐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확실한 콘텐츠를 말이다. 예를 들어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전두환으로 분한 황정민 배우의 비주얼이 개봉 전 화제가 되었고, 영화를 보면 모두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며 이야기에 몰입 할 수 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SNS를 통해 콘텐츠가 재생산이 되면서 퍼지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작품들은 사람들이 그 이슈에 뒤흔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또, 요즘 관객들은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의 서사나 문법을 원한다. 지금은 예전에 무조건 통하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변화의 시대다. 최근 극장 개봉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에 제작되었다보니 관객들의 최신 경향에 맞추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극장 영화의 흥행 좌절이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다.

**손민경** 극장의 위기는 저도 체감 중이다. 세일즈를 하다 보면 시기상 영화가 강세일 때가 있고, 드라마가 강세일 때가 있다. 지





박은영



윤승일



김유경



박세리



손민경

# 원천 IP를 콘텐츠로 개발하기까지

금은 확실히 드라마가 강세다. 영화는 아쩔 수 없이 빈익빈 부익부로 박스오피스가 높으면 많이 팔리고,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박스오피스가 낮으면 판매 단가부터가 낮아진다. 요즘처럼 극장시장이 힘들 때 영화 판매는 더 힘들다. 최근엔 IP를 개발해 멀티유즈(multi-use)로 활용하는 IP 비즈니스가 적극적인 시대다. 그래서 IP를 확장해 나가기 좋은 스릴러나 호러 같은 장르물을 많이 찾는다. 로맨스나 드라마 장르 대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가성비도 좋다 보니 제작비가 적은 신생 제작사는 장르물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박세리** 지금은 사람들이 본인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감정을 많이 쏟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작품보다는 스릴러나 호러처럼 확 몰입하면서 보고, 보고 나면 속 시원하게 극장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듯하다. 부산스토리마켓 개최에 앞서 심사를 통해 작품 선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것과 잘 팔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다. 좋은 건 이것이지만 그래도 마켓을 통해 계약이 되어야하고, 이후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기에 잘 팔릴 수 있는 장르물 쪽으로 편승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

**윤승일** 우리는 신작이 나오면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에게 온라인 레터를 통해 신작 소개를 한다. 그걸 본 제작사가 연락이 오면서 작품 판권 세일즈가 이루어진다. IP를 세일즈 한다는 것은 받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받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제작사들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좋은 IP라도 적정가에 팔리려면 제작사의 제작 여건이나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은 제작사나 투자사의 여력이 많이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요즘 관객들은 영화관에 올 때는 영화만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같은 공간의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경험과 체험을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다 같이 놀라서 소리 지르거나, 다 같이 감동해 눈물 흘리거나, 다 같이 로맨틱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콘텐츠가 선택받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년 호러 장르의 IP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영**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원천 IP 상태에서의 판단과 실제로 대중들에게 환영받는 작품들 사이의 갭이 크다는 생각도 들더라. 저희는 최근에 <소풍>이라는 극장용 영화를 제작해서 부산영화제에 선보였는데, 노인들의 삶과 죽음에 관해 어둡지 않게 고찰하는 드라마 장르이다. 이야기는 분명 선택받는 콘텐츠는 아니었다. 이미 출중한 배우들이 캐스팅 되어있는 상태였으나 장르영화가 아니고 젊은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사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해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받고 어렵게 추가투자를 유치해 저예산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공개하니 반응이 좋아 최근 배급이 결정되었다. 이유는 최근 극장이나 OTT에 자극적이고 센 장르물의 홍수로 인해 오히려 이런 장르의 작품이 반갑다는 의견이었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시장에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쪽은 어떠한가? 해외 관객들은 한국의 어떤 영화를 주로 찾는지 궁금하다.

**손민경** 사실 지금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나오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의 보는 눈이 비슷해져가는 시대다. 그래서 국내에서 통하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된다. 한국의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간 작품이라도 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을법한 상황이면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 사극이 많이 나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영화의 해외판매 이야기를 하면 작년 영화 <육사오(6/45)> 케이스를 많이 이야기한다. <육사오(6/45)>의 경우 베트남에서 굉장히 흥행했다. 코미디 영화가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데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의 상황이 베트남 상황과 비슷하고 그런 정서가 베트남에도 남아있기에 통한 거다. 게다가 번역과 홍보도 현지화가 너무 잘 된 케이스였다. 그러나 이걸 태국이나 대만이나 타 국가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육사오(6/45)>의 케이스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대작 영화, 톱스타가 나오는 영화들이 해외에 팔린 것과는 다른, 간만에 나온 중급 영화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더 많은 중급 영화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더욱 세부적인 해외 관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 원천 스토리 IP 발굴 -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

**박은영** 자연스럽게 IP 발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고트닉이엔티의 경우 어떤 IP를 개발하고 발굴하고자 하나. 또 그런 IP를 가진 창작자들은 어디서 발굴하는지도 궁금하다.

**윤승일** 다들 아시겠지만 원천 IP를 콘텐츠로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보니 개발 당시에는 신선하고 특수한 소재였으나 개발 과정에서 해당 소재가 사용된 다른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개발하면서 기존의 IP에서 이것저것 요소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과정과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고유성이 확보된 IP를 좋은 IP라고 본다. 우리의 경우 보통 60% 이상 기획 단계에서부터 창작자와 함께 개발을 진행하거나 개발을 돕는다. 확장성이 높은 IP가 되도록 소설을 기획 단계부터 함께 구성하고, 최종 완성된 IP를 영상화 단계로 넘기는 거다. 최근엔 창작자가 본인이 개발한 IP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 집필까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손민경** IP 거래의 경우 드라마, 영화 개별로 계약이 진행되나?

**김유경** 그렇다. 각각 개별로 진행한다. 그래서 보통 두 개 다 계약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화와 드라마 두 개를 다 사면 계약금이 더 높아지고, 그 권리의 보유 기간도 많이 짧아졌다. 최근에는 대기업 콘텐츠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속한 작가들의 판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제작 스튜디오와 배우 매니지먼트까지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 제작사 입장에서 IP를 고를 수 있는 환경에 오히려 제약이 생겼다. 플랫폼 자체가 IP가 될 수 있는 웹툰, 웹소설 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바로 영상화할 수 있는 제작사, 배우를 다 가진 환경이 된 거다.

**박은영** 자칫 투자사와 창작자만이 살아남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에 집중을 하는 역할이고, 그 창작물과 대중의 접점을 생각하는 건 프로듀서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프로듀서의 역할을 투자사가 가져가고 있지 않나. 투자자의 영향력 안



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면 모든 콘텐츠가 비슷한 흐름과 색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간의 지원과 노력으로 스토리 IP를 육성하고, 창작자를 육성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창작자들의 IP를 기획 개발해 나가는 시스템 역시 보강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지금은 IP 공급은 넘치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제작사의 자본력과 기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다. 좋은 이야기가 좋은 결과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가 결과물로 탄생되기까지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제작사, 프로듀서의 역할에 대한 권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본다.

**박세리**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 프로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받는다. 해외에서는 보통 세일즈 할 때 제작 프로듀서들이 안목을 가지고 창작자의 작품을 골라 투자사와 연결하고, 세일즈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감독 중심이다 보니 영화제만 하더라도 작품 초청 시 감독은 당연히 초청하지만, 프로듀서를 초청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박은영** 그렇다. 현재 시장에서의 IP거래는 어떠한가.

**박세리** 마켓에서는 최근 몇 년간 매년 한국 IP를 30편, 아시아 쪽 IP를 20편 정도씩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는 현재까지 한국 IP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나름 핫하다는 출판사나 IP를 소개하는데 아직 해외 IP 거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해외 작품의 경우 사실상 IP 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번역역이 다 되어있어야 한다. 단순히 트리트먼트 같은 줄거리 번역만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무언가 만들어진 리메이크 개념의 거래라면 몰라도 그런 가공이 이루어지기 전 원천 IP의 해외 거래는 아직까진 이르다고 본다. 국내 IP가 해외 제작사와 거래된 경우 역시 아직 없다. 상호 간에 해외 거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박은영** 현 시점에서 스토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좋은 IP가 좋은 콘텐츠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김유경** 사실 근 10년간 기획개발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었던 건 맞다. 그 지원에 대한 성과도 필요한데 계속해서 그냥 기획개발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시스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박은영** 맞다. 기획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작품들은 제작되어 결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작품이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거나 더 좋은 기회들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이다.

**김유경** 사실 왜 제작사에 대한 투자/지원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아직 영화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 안 되는 분위기더라. 영화사의 경우 상시 근로인력이 있고, 일정한 운영비와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지 않나. 작품을 기획개발 할 때는 소수로 진행되다가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고, 거기서 매출이 몇십억씩 나오고 그런 구조다 보니 지금의 기업 투자나 지원에 대한 기준과 맞지 않았다. 이런 특수성을 기반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은영** 최근 몇 년간 IP 피칭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원천 IP를 볼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피칭 행사만 1년 다녀도 거기서 만난 콘텐츠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제작사들이 기획개발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인 시나리오인 IP로 인정을 못 받는다.

**김유경** 작품 개별에 대한 투자와 지원만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제작사)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없으니 계속해서 그 작품만 섬처럼 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박은영** 마켓이나 시장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건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접점을 만들 기회가 생긴다는 거다. 마켓이나 시장을 어떻게 잘 활용해 진출하고 거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줘야 한다.

**박세리** 사실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다. 현재 업계 상황이 그런 것 같다. 이전에는 필름마켓이 영화만 하다가 콘텐츠까지 확장하면서 지원받는 주체가 불분명해졌다. 콘텐츠를 영화로 볼 것이나 영상 콘텐츠로 묶어 볼 거냐에서 이미 경계가 다 무너졌다. 지금은 시스템도 기관도 히스토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 바꿔 나가야 한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마켓에서도 실제로 메이드 되는 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희 같은 플랫폼들은 IP를 소개하고 발굴해서 이들이 더 많은 바이어를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그러다보니 참여하는 분들도 당장 마켓에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오기 보다는 홍보나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오신다. 그러니 거래량만으로 실적을 내는 것은 마켓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기관이 기회와 장을 만들어줬으면 하지만 어찌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실적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윤승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IP 개발에 대한 콘텐츠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큰 핵심 화두가 슈퍼 IP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였다. 사실 슈퍼 IP는 단기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대표적인 슈퍼 IP인 <해리포터> 시리즈나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적게는 50년, 수백 년의 기반과 저변을 통해 나온 것이라, 단기간에 성취하기 어려운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지원을 통해 지금 무엇이 가능해졌다면, 양산 시스템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거다. IP를 양적인 한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개발하고 그 IP를 선보이는 창구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됐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 공개된 IP에 관심을 가지고 CP사를 찾아오는 개인 프로듀서들이 생겼다. 하지만 열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 프로듀서들이 IP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 정도의 투자만 된다면 바로 시작을 해서 기획을 거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말이다. 그러니 단순히 IP 개발이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정교한 설계와 지원이 들어가 1차적인 개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다.

**박은영** 소통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모두가 다 IP 개발만 할 수 없다. 또, IP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IP 형태인 시나리오들도 많다.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들은 대중하고 만날 수 있는 점점 자체가 영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도 무엇으로든 먼저 만들어져서 이후에 영상화가 되는 원활한 흐름, 소통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진 분들과 웹툰사나 출판계가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만들어졌으면 했다. 그런 흐름이 기관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내년의 전망과 계획

**윤승일** 갈수록 IP를 구매하기 위해 신중해지는 분위기는 분명하다. 그전에는 지금보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IP에 큰 투자가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의 영상산업은 이전과는 또 달라졌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영화,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IP를 선택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IP의 가격도 시장의 규모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IP 개발사는 영상산업의 가장 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결국 이 산업이 잘 돼야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다. 어떻게 이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지 더 큰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세리** 마켓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다 볼 수 없는 IP를 먼저 걸러준다는 것이 의미있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IP의 다양화보다 기회의 다양화를 열어줄 때라고 생각한다.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할 기회를 찾아야 하는 때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시아 IP의 경우 차라리 리메이크 판권같이 실질적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기회로 가고 저희는 한국 IP를 좀 더 다양한 CP사들에게 소개할 방안이나, 기회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보는 식으로.

**손민경** 저 역시 현재 뉴 라인업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과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 신인 감독과 신인 제작사, 신인 프로듀서들과 작업을 하는 기회가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마켓이 뭔지, 페스티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직접 특강을 다니며 그런 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다.

**김유경**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며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증명해나가고 싶다. 잘 살아남아야 나중에 뭐라도 한다.

**박은영** 결국 저희는 버티고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대담을 이어나갈수록 쓸쓸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잘 버티서 내년 연말엔 다시 영화산업이 부흥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부진**





영화와 바다를 품은 공간이 부산에 있다. 줄지어 정박한 요트와 반짝이는 잔물결을 마주한 이곳에서 수많은 한국 영화가 탄생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만 다섯 편. 칸영화제에 진출한 영화를 포함해 세계를 열광하게 만든 다양한 작품을 촬영한 장소다. 해운대 요트경기장에 터전을 잡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20년 넘게 한국 영화의 산실이었다. 부산을 영화·영상도시로 거듭나게 만든 핵심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부산에서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로 성장했다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부산을 영화 제작에 매력적인 도시로 이끌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했다. 영화를 넘어 OTT 시리즈까지 영역을 넓히며 새롭게 단장했다. 스튜디오 촬영과 연계해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부산 곳곳을 영화에 담는 일에도 일조했다. 그래서인지 <헤어질 결심>(2022)과 <서울의 봄>(2023) 같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새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다.

## 한국 영화와 함께 한 10000일 영화·영상산업의 스테디셀러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글 이우영 부산일보 기자



## 10000일의 역사

긴 세월 동안 굳건했다. 2002년 영화 <오아시스>와 <지구를 지켜라> 등을 시작으로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전국적으로 주가를 높여왔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위기에 빠져도, 급성장한 OTT 시리즈가 새 작품을 줄여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올해 10월 기념비적인 날이 찾아왔다. 개관 22년 만에 스튜디오 대여 일수가 1만 일을 넘어섰다. 2001년 11월 문을 연 스튜디오 A동(837m)과 2004년 2월 운영을 시작한 B동(1682m)에서 촬영한 날을 더한 수치다.

촬영 1만 일을 돌파한 스튜디오는 여전히 분주했다. 올해 11월 7일 스튜디오 2개 동에서는 티빙 시리즈 <우씨왕 후> 세트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김윤재 부산영상위원회 스튜디오운영팀장은 “OTT 시리즈는 스튜디오 세트 조성 과 촬영 기간이 영화보다 길며 몇 개월씩 계속되는 편”이라며 “이번 작품에서 궁궐 등이 배경인 주요 장면을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에서 스튜디오 촬영을 원하는 감독과 제작자가 여전히 많다”며 “잠시 부산 제작사 영화를 찍기 위해 다른 작품 촬영 일정을 늦춰달라고 양해를 구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장비와 시설도 강점이다. 같은 날 스튜디오 1층 입구에 들어서자 ‘XR(확장현실)테크랩’이 눈에 띄었다. 움직이는 도로 영상미 미디어 벽에 나오고 있었고, 그 앞에 자동차를 놓아둔 채 촬영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도로가 나오는 배경 덕에 자동차는 마치 달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팀장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특수 장비뿐 아니라 분장실 등 배우와 스태프를 위한 공간이 잘 갖춰진 편”이라며 “수도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긴 시간 동안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부산에서는 가까운 숙소에서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때때로 외부 촬영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특히 부산에서 대형 할리우드 작품을 촬영할 때도 큰 도움을 줬다. 2017년 마블 영화 <블랙팬서>가 부산에서 촬영할 당시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는 국내 스태프 50~60명이 머무는 거점 사무실이 차려졌다. 스튜디오 앞 주차장은 ‘베이스캠프’가 되기도 했다. 광안대교 촬영 등을 앞두고 추격 장면에 등장하는 차량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했다.

## 한국 명작의 탄생

한국 영화사에 남을 작품과 OTT 드라마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22년 촬영한 두 작품도 부산에서 찍기 전부터 기대작으로 꼽혔다. 2023년 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서울의 봄>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시리즈 <유쾌한 왕따>가 지난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쳤다.

특히 1979년 12:12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은 총 20회 차를 부산에서 찍었다. 황정민이 대머리 분장을 하며 연기한 ‘전두광’과 정우성이 맡은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등이 작전을 짜고 전화 등으로 대립하는 많은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수도경비사령부 상황실, 사령관실뿐 아니라 제30경비단 작전실, 정보실, 사단장실, 화장실 등이 세트로 구현됐다.

부산 곳곳에서 촬영이 이뤄지기도 했다.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와 로케이션이 연계된 사제로 동래구 온천동, 남구 대연동, 강서구 대저동, 사상구 삼락동, 중구 중앙동 등에서 외부 촬영을 진행했다. 영화에서는 연희동 요정 내부와 골목, 전두광 자택, 수경사 군부대, 이태신 자택, 무교동 거리 등으로 등장한다. 옛 느낌이 나는 공간이 선택받은 셈이다.

2021년에 촬영한 작품들도 성공을 거뒀다. 영화 <헌트>(2022),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2022),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2023) 등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칸영화제에 진출한 <헌트>는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뿐 아니라 도쿄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 등을 부산역 일대에서 찍기도 했다.

2020년에는 영화 <헤어질 결심>과 <한산: 용의 출현>(2022),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1>(2021)도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에서 찍었다. <헤어질 결심>은 금정산과 한국해양대 등 부산 23개 장소에서 로케이션 촬영이 진행됐다. <D.P 시즌1>에서는 영도구 한 아파트와 수영구 광안동 지하 벙커 등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스튜디오를 넘어 부산 곳곳이 담긴 주요 사례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해운대><국제시장><택시운전사><부산행> 등이 부산영화촬영영스튜디오에서 탄생했다. <부산행>은 부산으로 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지만, <해운대>나 <국제시장>은 부산 곳곳을 그대로 그리기도 했다.

장르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작품이 많이 탄생했다. 부산영화촬영영스튜디오가 곧 한국 영화의 역사였다. 영화 <기적>(2021), <남산의 부장들>(2020), <공조>(2017), <더 킹>(2017), <아수라>(2016), <검사외전>(2016), <연평해전>(2015), <군도: 민란의 시대>(2014), <신세계>(2013), <연가시>(2012),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황해>(2010), <내 사랑 내 곁에>(2009), <인사동 스캔들>(2009),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해바라기>(2006),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2006), <맨발의 기봉이>(2006),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2005), <우리 형>(2004),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 등이 있다. 제목만 봐도 고개가 끄덕여질 영화가 대부분이다.

### 시민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작품 촬영만 활발한 게 아니다. 부산영화촬영영스튜디오는 영화인이 아니더라도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과 시민 등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기관이나 학교 등 단체 견학은 1주일 전에 예약을 신청하면 일정을 협의해 스튜디오를 둘러볼 수 있다.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개인 견학도 가능하다.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bf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 팀장은 “진로 체험을 하려는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튜디오가 궁금한 개인을 위한 견학 시간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촬영 대어 1만 일 돌파 이후 대시민 시사회도 열었다. 2001년 개관 이후 시민 시사회는 처음이다. 올해 11월 23일 롯데시네마 부산본점에서 영화 <서울의 봄> 시사회를 열어 시민 약 400명을 초청했다. 영화 영상도시 부산의 핵심 인프라인 스튜디오를 알리는 동시에 부산 곳곳에서 촬영에 협조한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마련한 자리다.

김 팀장은 “부산 시민들 협조가 있었기에 부산에서 스튜디오를 이용하려는 제작진이 많은 듯하다”며 “부산 시민들 배려에 현지 로케이션 촬영이 원활했다고 말하는 감독이 많다”고 했다. 그는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시사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산영화촬영영스튜디오는 2023년 영화 4편과 OTT 시리즈 2편 촬영을 유치했다. 한국 영화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지고, OTT 시장이 주춤해도 2024년 2월까지 예약이 찬 상태다. 김 팀장은 “도심에 있는 부산 스튜디오는 부산 곳곳으로 촬영하러 가기에 위치가 좋다”며 “스튜디오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이우영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디지털미디어부에서 영상 제작을 잠시 경험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BIFF) 파견 근무를 계기로 문화부에 지원해 올해 11월까지 문화부 기자로 근무했다. 지금은 다시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다. verdad@busan.com

# 공항보다 더 큰 롯데면세점 에서 산다



### 롯데면세점 부산점 프로모션

기간 : 24/1/1 ~ 24/6/30, 위치 :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8층

- ① VIP 골드 발급 최대 15% 할인
- ③ PRE LDF PAY 1만원 증정(\$150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
- ② 할인 쿠폰 5종 증정(최대 5만원)
- ④ \$600 이상 구매 시 대마도 승선권 증정

명동본점 | 월드타워점 | 부산점 | 제주점 | 인터넷면세점



# 가치로 만드는 가치, 같이 만드는 가치

인터뷰 진행·정리 <영화부산> 편집팀



여기, 자산의 가치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프는 국가 소유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파악해 이를 가장 가치있게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올해 8월, 국가 유휴자산을 촬영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프와 한국영상위원회의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영화·영상 산업은 실제 활용되던 건물을 촬영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목적에 다한 채 방치되었던 미활용 상태의 유휴자산에는 새로운 생명력과 가치를 더해준 '같이다. 유한한 자산에 사회와 산업,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창의력이 더해지자, 무궁무진한 기회와 무한한 가치가 창출된다. 캠프 국유재산본부 남희진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일을 한 뼘 더 기대하게 하는 희망을 엿볼 수 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남희진 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프)는 1962년에 설립되어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 기업구조조정,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공적 자산관리전문기관이다. 지난 60년 동안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경제의 고비 때마다 국가경제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엔 국정 1호 과제인 새출발기금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 기업, 지자체, 국가의 자산 관련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는 기관이다.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개인을,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해 주며, 국가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이 있으면 국가 대신 관리 및 매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캠프에서 국유재산본부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청사, 도로, 항만 등 현재 국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목적에 필요가 없어져 사용되지 않는 재산을 일반재산이라 지칭한다. 일반재산이 전국에 73만 건이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 73만 건의 부동산을 캠프 국유재산본부가 관리하며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임대, 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5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수입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통해 도시숲 조성, 영상 촬영 장소 제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대국민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캠프 국유재산본부를 기대해달라.

지난 8월, 캠프가 한국영상위원회와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무 협약은 어떤 배경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협약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국에 73만 건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일부는 매각을 진행한다. 그런데 현재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 또한 전국에 엄청 많다. 예를 들어 교도소나 경찰서처럼 특정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던 건물의 경



우 이후 범용적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기에 유희상태로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도, 매각도 적당하지 않은 재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영화-영상업계와의 협업을 생각해 봤다. 과거 광주 소재의 용도폐지 교도소를 <프리즌>(2017)이라는 영화에 제공한 사례가 있어 협업 시 영화-영상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국영상위원회와 연락해 협약을 맺게 됐다. 사실 촬영지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닌가. 그래서인지 처음 영상위원회 측에 연락을 드렸을 때 굉장히 반가워 해주셨다. 협약 체결 날엔 전국에 계신 영상위원회 관계자분들이 모두 참석해서 뜨겁게 환영해 주신 일이 기억에 남는다.

**협약 체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협약 체결 이후 국유재산 로케이션 발굴 및 실제 촬영을 위한 임대계약 체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 국유 일반재산을 분석해 1차로 선별한 건물 데이터를 영상위원회에 보냈다. 이후 영상위원회가 촬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재산들을 필터링했으며, 2차적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공사 지역본부가 촬영 목적 임대 가능 여부 검토를 거쳐 대상 재산을 선정한 상태다. 최종 선정은 공사와 영상위원회의 공동 현장 답사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캠프 국유재산포털 사이트에 DB를 구축하여 제작사 등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로케이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국유재산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로케이션 임대 여부 및 임대 기간과 같은 현황과 현장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각 지역 영상위원회를 통해 로케이션 임대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포털 구축을 위해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된 로케이션에서 상세 촬영을 진행했다. 이제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촬영 진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인 로케이션 사용 문의나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의 문의가 제일 많다. 서울 소재 옛 경찰서와 경기 소재 옛 치안센터 2곳은 이미 촬영을 위한 단기 대부계약을 완료했다. 대부 가격의 경우 재산가액, 즉 땅값에 따라 대부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은 대부료가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곽 지역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곳 외에도 지방의 법원 건물이나 공장 건물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세 군데 정도 더 있다. 앞으로는 영상위원회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업계 상황에 대한 가이드나 저희 인력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영상위원회 측에서 담당해 주시니 좋은 상생 관계다.

**이외에 국유재산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나.**

ESG 경영 차원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해 환경적으로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산림청과 23년 6월 협약을 맺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다. 도심지 내에 활용하지 않는 국유지가 있으면 그 국유지를 활용해 산림청과 함께 도시숲을 조성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강원도 양양이나 대구 등 다섯 군데 정도 진행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소멸을 막기 위한 꿀벌살리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국유재산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도시 양봉장을 설치하고 벌이 꿀을 채취하는 밀원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산림청, 양봉협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캠프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에서 생활하며 가장 크게 느낀 부산의 매력이 무엇인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에 캠프 본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캠프는 부산으로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중 제일 규모가 크고, 이전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다. 이전 당시엔 걱정이 많았는데 살아보니 부산이 너무 좋더라. 저는 부산에 계속 살기 위해 집을 지었다. 이전까지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왔었는데 부산에서 살아보니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양성이 느껴지는 도시였다. 부산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를 특히 좋아한다. 대한민국에서 부산의 기후조건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도시지 않나. 이런 이유로 부산을 찾는 촬영팀도 많다고 들었다. 야외촬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엔 기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니 말이다. 살아보니 부산이 괜히 영화의 도시가 아니었다.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인가. 좋아하는 장르나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다.**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 특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장르나 작품이 좋다. 현대를 살아가는 셀러리맨들이 다 너무 바쁘고 각박하지 않나. 그럴 때 따뜻하고 감동적인 작품을 보고 나면 힐링이 된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2005)이나 <너는 내 운명>(2005) 같은 영화를 보면서 평평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면 평소에 그런 감정을 느낄 기회가 많이 없다. 드라마의 경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따뜻하게 그려내는 노회경 작가나 박해영 작가의 작품을 좋아한다. 특히 노회경 작가의 <관찰아, 사랑이야>(2014)라는 드라마는 저를 변화시켰다. 그전까지는 제가 좀 차갑고 성과지향주의적인 워커홀릭의 성향으로 지냈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마음의 병과 아픈 구석이 있기에 같이 살아가는 동료나 지인, 주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정말 많이 변했다. 정말로 제 삶을 변화시켜준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영화부산>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고민으로 영상위원회와 MOU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이 K-컬처 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우리로서는 너무 영광이다.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 이런 공적인 역할로 성과를 냈을 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개인적인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의 단계도 잘 준비해 밝아나가며 영화-영상 산업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우진**





사진: 다음영화(Daum)

포커스온OTT

# 평면의 일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THE WONDERFUL STORY OF HENRY SUGAR>(2023)

감독 웨스 앤더슨

주연 베네딕트 컴버배치, 랄프 파인즈, 데브 파델, 벤 킹슬리, 리처드 아이오아디, 루퍼트 프렌드

채널 NETFLIX

지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데드센터의 <베케트의 방>을 관람했다. 사무엘 베케트와 그의 연인 수잔이 지내던 파리의 아파트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 연극에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인물들이 드러나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목소리, 흔적, 동선, 그림자는 제시되지만 정작 그들의 실체는 관객에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 원고를 쓰는 타자기, 물을 따르는 주전자 등 생생하게 움직이는 이 연극에서

데드센터는 퍼펫터(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품들에 가느다란 실을 연결하여 이야기에 맞게 구동하도록 했다. 인형 없는 인형극인 셈이다. <베케트의 방>은 사무엘과 수잔이 집안을 거니는 모습이 아니라, 음향과 조명을 이용한 환영적 요소들을 통해 연극의 실시간성은 내재하되 그것이 끊임없이 부재라는 층위 위에 놓이도록 유도한다.

총 3막 구성인 이 연극의 세트 앞에는 스크린이 장막처럼 내려와 있다. 관객은 이 막을 투과하여 이 무대를 보게 된다(그 위에는 인물들의 대사가 한글자막으로 뜬다). 막간마다 화면에는 '끝-중간-처음'이라는 제목이 뜨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푸티지(특정한 사건을 담은 장면)들이 영사되어 비어버린 인물들에 관한 단서를 보충한다. (모순어법으로서) 없는 존재, 불투명한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삼중의 조건이 사무엘과 수잔을 이룬다. 하지만 베케트의 작품을 관통하는 부재(함)의 모호성이 <베케트의 방>에서는 부재와의 적극적인 직시로 허겁지겁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 이 성급한 결론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내가 떠올린 것은 다르다. 로알드 달의 작품들을 원작으로 한 웨스 앤더슨의 넷플릭스 단편들이었다. 로알드 달 단편집이라 일컬을 만한 이 네 편<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독><백조><쥐잡이 사내>은 앤더슨이 천착해온, 예민하게 세공된 세계 틈으로 인물들이 가질 수 있는 다중의 정체성이 특히 돋보이는 작품들이었다.

매체를 막론하고, 일정한 서사를 가진 픽션 안에서 우리는 늘 인물을 보게 된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가 중요한가? 로알드 달 단편집은 각기 짧은 러닝타임 내에서 쉬지 않는 발화를 통해, 픽션임에도 증언에 가까운 설득력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이 이야기들은 역시나 다층적이고 계열화된 액자 안에서 진행된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러나 그러다 보면 이 인물은 이 액자와 저 액자에도 공존하고, 각 액자는 겹치면서도 서로의 무게가 훼손되지 않는다. 여기서 각 액자의 발화자들은 보편적인 감정이나 정동으로 번뇌하는 '인간적' 인물(character)로 우리에게 감응되기보다는, 발화자이면서 주인공이고 또 지나가는 단역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작가의 역할까지 갖는 다중적 기능자들로서 감각된다. 하나의 예시. 헨리 슈거(베네딕트 컴버배치 분)가 발견한 책에서 Z.Z. 차터지가 적은, "그날 밤 임다드 칸(벤 킹슬리 분)이 내게 해준 모든 이야기(토씨 하나까지 같음)"를 떠올려보자. 임다드 칸은 자신이 어찌하여 눈을 감고도 투시를 하는 능력을 갖

게 되었는지를 어린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회고한다. 어느 날 그가 무성한 수풀을 헤집고 갔더니 수행자가 46분간 공중부양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당시 열일곱 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머리가 하얗게 센 현재의 임다드 칸이 수행자와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미 나이가 든 임다드 칸이 수행자에게 "그때쯤이면 늙었을 텐데요"라고 말할 때 앤더슨은 시간을 간명하게 뒤엎기게끔 만든다.

무엇보다 앤더슨의 건조한 드라마는 자주 연극적이라고 오해되는 것 같다. 영화적이라는 말만큼이나 모호한 연극적이라는 수사는 앤더슨의 영화를 논할 때 자주 따라나오는 레토릭 중 하나일 텐데, 로알드 달 단편집에 이르면 그것은 정확히는 '인공적'이라고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장과 막을 나누거나, 배경이나 분장을 실시간으로 바꾸거나, (패닝을 통해) 한 공간 안에서 무대의 전환을 이뤄내거나 하는 것은 연극의 특징일지는 몰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미 앤더슨이 영화에서 수시로 해온 것 아니던가. 요컨대 마노엘 드 올리베이라의 영화들에서 실제로 인물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수행하는 것과 달리, 웨스 앤더슨은 (<에스테로이드 시타>의 도입부에서부터 관객이 마주할 이 서사가 가상의 액자로 둘러싸여 있음을 선언하며 시작했듯) 이 가공된 수많은 레이어 틈으로 이뤄진 영화 안에서 관객이 (연극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변모하는 픽션과 조우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말하는 것일지 모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에서 부재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해석되길 기다리는 불명료한 상징이 아니라, 거기 있으나 이 프레임 안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현되지 않을 따름이다.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헨리 슈거가 발코니에서 현금을 뿌릴 때 그 길바닥의 사람들의 모습은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헨리 슈거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한다. 평면 안에서 서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이제 웨스 앤더슨의 인물들은 뼈대대며 움직이는 퍼펫(puppet, 인형)을 넘어 스토리텔러가 되어가고 있다. **김민준**

## 이보라

<씨네21>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에서 비평이 당선되어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동시대 영화를 구성하는 문화와 제도에 대해 질문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한다. deborahbrlee@gmail.com





사진: 다음영화(Daum)

영화관에 간 심리학

# “모든 농담은 하나의 작은 혁명이다.” - 조지 오웰

<극한직업>(2018)

감독 이병헌

출연 류승룡, 이하늬, 진선규, 이동휘, 공명

낮에는 치킨 장사, 밤에는 잠복근무?

오합지졸인 것 같지만 유도 국대 출신의 마 형사(진선규 분), 사람도 죽여 봤을지 모른다는 UDT 특전사 출신 영호(이동휘 분), 장박이라 불린 여자 무에타이 동양챔피언 장 형사(이하늬 분), 멧집이라면 남부럽지 않다는 야구부 출신 재훈(공명 분),

그리고 강력범죄 20년에 12번 칼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서 좀비라 불리는 사나이 고 반장(류승룡 분)까지. 그러나 매년 허탕을 치던 마약반은 해체 위기까지 맞는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고 반장은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

고 장 형사, 마 형사, 영호, 재훈까지 5명이 잠복 수사에 나선다. 마약반은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원에서 갈비집을 하는 마 형사 부모님의 레시피를 활용한 치킨집은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어느새 수사를 하는 것인지 치킨 장사를 하는 것인지, 자신들이 형사인지, 치킨집 사장인지 직원인지 혼란스럽던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극한직업은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며 일해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경찰들의 삶과,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유쾌하게 비틀었다. 극한직업에서의 웃음 코드는 예상을 빚나간 반전이다. 잠복근무를 위해 치킨집을 인수했는데 문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경찰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장사에 몰입하는 장면이 가장 웃기는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후배들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 본연의 정체성을 강조하던 고 반장이 전화를 받으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는 멘트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읊는 장면이나, 잠복근무를 하기 위해 택한 치킨집에서 범인들을 발견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경찰들을 수상하게 여긴 치킨집 사장에게 게임을 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그 예이다.<sup>1)</sup> 이런 반전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인지적 전환(cognitive shift)’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문: 변호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막는 방법은?

답: 물에 빠지기 전에 총을 쏘.

인지적 전환의 관점에 따르면 이 유머는 누군가 변호사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에 있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 사람들은 웃지 못할 수도 있다. 말장난이나 화장실 유머, 야한 농담, 인종에 관한 농담, 몸 개그(slapstick) 등을 생각해 보자. 각각의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웃고 즐거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례하고 한심하고 바보스럽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적어도 재미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농담의 전제를 이해하고 그 핵심을 놀라우면서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준과 누가 그 농담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도 좌우된다.<sup>2)</sup>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은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웃음이 명약이다. 고통을 줄여주고 병을 낫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유머는 의학적으로 유익할 수 있고 해가 되진 않겠지만 건강상의 이점에 관한 과학적 증거는 약하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음이 우리의 건강과 안녕, 행복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적어도 찡그리고 화난 모습보다는 웃는 얼굴이 보기 좋고 그런 사람과 우리는 만남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사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영화 한 편이 진정 필요한 시대다.<sup>4)</sup> 영화평론

1) 박소진(2022), 영화관에 간 심리학, 커피믹스  
 2) 민경환 외(2015)/정서심리학(emotion)/센게이지러닝  
 3) 민경환 외(2015)/정서심리학(emotion)/센게이지러닝  
 4) 박소진(2022)/영화관에 간 심리학/믹스커피

박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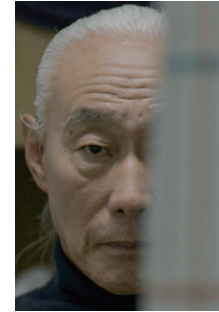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무관한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문득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 비교적 늦은 나이에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심리학에 입문, 발달장애 및 발달심리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는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대표로 심리학의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해보는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 FILM REVIEW

필름리뷰 코너는 부산 평론가들의 활동과 글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 오인된 호명의 순간 얼굴이 흘러내린다. 김영광



<검치호>(2022)

감독 이강욱  
주연 왕호, 원진, 박지희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면, 무심코 걷다가 극장에 들어선 기억이 있다. 최소 10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꽤 운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 사이 바빠졌고 일이 많아졌으며, 당연히 돈을 생각해야하는 일이 많아졌다. 돈은 상당한 여유를 빼앗는다. 그래도 운치 있는 경험을 빼앗기진 않아서 좋다.

이강욱 감독의 장편 데뷔작 <검치호>는 '액션' 영화이다. 부산 올로케이션 영화이며 팔꿈치와 팔목이 닿고, 그 사이에 밀고 당기는 무(武)가 느껴지는, 운치의 액션영화이기도 하다. 그 밀고 당김의 운치는 당대의 액션배우 왕호(검치호 역)와 원진(칠점사 역)이 있어서 가능했겠지만, 개인적으로 꼽는 이 작품의 성취는 주조연의 연기가 모두 기운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무명배우들이다.

꽤 오랜 시간 엄마의 병간호를 한 소녀 미영(박지희 분)이 있고, 은퇴하여 아내의 병간호를 계속한 노인이 있다. 오랫동안 소녀와 노인은 같은 병실에 있었지만 왕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우연히 소녀가 총을 쏘게 되고, 그 사실을 안 노인이 소녀를 주시하게 되며 그 총과 관련된 비리경찰들이 병원에 들이닥치면서 노인은 '검치호'임을 드러내게 된다. 당대의 킬러라고 해야 할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떠난 배신자라고 해야 할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비리경찰들이 검치호에게 당하면서 은원이 있던 칠점사가 귀신 같이 병원에 도착하게 되고, 액션 활극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순간이 길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의 운치가 이 영화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

'나 영화 좀 본다'는 시네필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있다. 일본의 영화평론가 하스미 시게히코. 최근에 <숫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낸 그는, 숫(shot)이란 영화의 기본단위를 '지고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는 즉시 감각적인 액션이 일어나는, 정동이란 말은 좀 담백하고 강력크한(?) '정념'을 일으키는 순간을 일컫는다. 영화는 대체로 그런 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이지만, 즉각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일종의 이상주의적 관점에 가깝다. 그렇지만 그 지고의 개념을 단순히 이상주의적이라 치부하기가 어려운 건 우리가 그런 '숫'들을 영화에서 계속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때처럼'.

<검치호>에는 감히 올해의 장면이라고 부르고 싶은 순간이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검치호는 소녀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 오인된 호명. '그 이름'이 극장 안에 울려 퍼질 때 검치호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듯하다. 그 힌트를 글속에 남겨두었는데 눈치 채시더라도 감흥에 지장은 없으실 것이다. 쌀쌀한 날씨에 혼자 극장에 오셨더라도 그 사실을 잊을 만큼 쓸쓸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무심코 영화 얘기를 할 친구가 있었던, 그때처럼. **필름리뷰**

### 김영광

영화의전당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5 영화비평공모'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론으로 상을 받았다. 웬만해선,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는 게, 요즘 취미다. buryascene@hanmail.net



## 훼손되지 않은 진심이란 무게 이하늘



<괴물>(2023)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주연** 안도 사쿠라, 나가야마 에 이타, 쿠로카와 쇼야, 히이라기 하나타, 타나카 유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묻는다. “괴물은 누구냐”고. 괴물로 지정된 대상에 대한 물음일까. 타자에 대한 질문일까. 1995년 영화 <환상의 빛>으로 데뷔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면, 평범함이란 무엇인지 되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정해진 규격에서 벗어난 진심을 발굴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는 그래서 이상하지만 신비로운 순간들로 가득하다.

신작 <괴물>(2023)은 오해와 어긋남이 얼마나 커다란 괴물을 만드는지 말하는 영화다. 초등학교 학생 미나토(쿠로카와 쇼야 분), 엄마 사오리(안도 사쿠라 분), 담임선생님 호리(나가야마 에 이타 분)까지 3가지 관점으로 구성된 <괴물>은 진실보다는 진심에 무게중심을 맞춘다. 초반부 미나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기묘한 행동을 행한다. 알 수 없는 행동에 사오리는 질문하고, 미나토는 “내 뇌는 돼지 뇌랑 바뀐 거야. 괴물 같아.”라고 중얼거릴 뿐이다. 공백 가득한 대답은 일종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사오리-호리-미나토 순으로 엮인 이야기는 요리(히이라기 하나타 분)라는 매듭이 등장하며 실체를 지니게 되고, 마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1950)의 라쇼몽 효과(같은 사건을 두고도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처럼 진실이 무엇인지 더는 구분 지을 수도 없게 만든다.

미나토의 짝막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오해. 이는 같은 반 친구 요리와의 우정을 숨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집안에서는 돼지의 뇌를 지녔다는 세뇌를 당하는 요리에게 미나토는 손 내밀지만, 그들의 우정은 아무도

보지 않는 버려진 장소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때문에 깊은 숲속에 위치한, 선로에서 이탈해 낡고 녹슨 기차는 미나토와 요리의 아지트이자 작은 교실이 되어주기도 한다. 아마도 초록빛이 우거진 들판에서 두 아이가 뛰노는 장면은 <괴물>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일 테지만, 얇은 보호막 안에 꼭꼭 숨겨둔 두 아이의 진심은 세상을 집어삼킬 정도의 강한 폭우에 의해 위태롭다.

<괴물>은 자연되더라도 진심만은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감독의 의지를 엿보인다. 어른 사오리와 호리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아이들의 아지트에 뒤덮인 흙을 파헤치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자. 카메라는 기차 칸 내부에서 바깥에 보이는 어른들의 희미하지만 점차 또렷해지는 손을 보여준다. 이는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발굴하고자 하는 진심이다. <아무도 모른다>(2005) 속 네 남매의 순수함,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2011)에서 기적을 기다리는 코이치(마에다 코키 분)의 간절함,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에서 부성애가 쌓이는 견고함까지 그의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이유는 진실보다는 진심의 무게 추가 더 무겁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괴물>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인 한 줄기 햇살이 내려앉은 가운데 뛰노는 미나토와 요리의 땀방울은 그 무게 추를 더 기울게 하지 않을까 짐작해 보는 바다. 이민정

### 이하늘

2022년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비평공모 공모전에서 <박찬욱 감독론: 변이하는 인물(들)과 되돌아갈 수 없는 세계>로 수상했고, 현재 언론사에서 영화담당 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cgs06027@naver.com

## “우리 영화도 좀 사랑해주라.” 함윤정



<거미집>(2023)

**감독** 김지운  
**주연**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정여빈, 정수정

영화에 관한 영화, 영화 속 영화. 김지운의 신작 <거미집>을 말할 때 으레 쓰이는 표현이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영화 관계자이고, 영화 제작 과정을 다룬 서사이니 그럴 만도 할 테다. <거미집>의 주인공이자 극중극 ‘거미집’을 연출한 김열(송강호 분)은 며칠째 생생한 꿈을 반복해서 본다. 그리고 결작에의 예감을 현실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촬영을 결심한다. 촬영 장면에서 흑백으로 전환된 화면이 정제된 편집본으로 제시될 때, 별안간 엉겨 붙은 ‘거미집’의 안팎은 이상을 향한 인물의 욕망을 대변한다. 하지만 영화란 수많은 ‘나’들이 함께 모여 꾸는 꿈이 아닌가. 그렇게 작품을 둘러싼 저마다의 욕망이 충돌할 때마다 <거미집>은 특유의 장르적 활력을 얻는다.

영화의 한 장면, 김열은 배우 강호세(오정세 분)가 자리를 뜬 촬영장 구석에 홀로 서있다. 총무로의 스타이자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바람둥이 강호세. 받을 사랑도, 줄 사랑도 넘쳐 외려 괴로운 그를 향해 김열은 씩씩한 어조로 읊조린다. “우리 영화도 좀 사랑해주라.” 내내 보이스 오버로 전해지던 인물의 마음이 작지만 선연히 화면 내에 표출될 때, 상대에게 가닿지 않은 대사는 되레 프레임 밖 관객의 귓가에 꽂힌다. 그리고 이때 ‘우리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인물의 대사는 이후 기묘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다시 한번, 영화는 혼자만의 예술이 아니다. 김열은 수정한 각본을 들고 제작사 대표를 찾아가고 스태프와 배우를 불러 모으는 등 다시금 ‘우리’가 되길 자처한다. 물론 이 모두는 그가 예술가로서 ‘나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색다른 장면”을 보여주려는 의지는 결국 자기 증명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야심

에서 기인한다. 어찌어찌 한바탕 소동 같은 촬영이 끝나고, 다시 혼자자 된 김열은 텅 빈 스튜디오에 앉아 기억의 장면을 감상한다. 그리고 <거미집>은 감춰진 진실, 곧 인물의 자기 고백을 도운 후에야 그를 프레임 밖으로 퇴장시킨다.

사라지는 색채, 어둠이 내려앉은 화면. 결국 한편의 영화만이 남는다. 완성된 ‘거미집’의 엔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2023년의 관객에게 해당 장면은 이미 익숙한 구도와 전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열이 고집하던 ‘플랑 세퀀스’<sup>1)</sup>의 효과는 미온하기만 하다. 이 난감함 뒤로 소환되는 것은 1970년대 가상의 극장이다. 끝내 불태워버린 창작욕, ‘나’ 외의 것들을 소진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시도에 대한 위로일까. 김지운은 김열의 방식을 따라 ‘거미집’ 저편의 인물들을 끌어올린다. 그들에게 요청된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영화의 카메라는 김열의 얼굴에 다가선다. 울가를 관객몰이에 실패한 <거미집>의 운명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두 남자의 형상이 아른거린다면 지나친 감상일까. ‘나의 고뇌에 대한 인정, ‘우리의 노고에 대한 애정을 희구하던 목소리’가 그 위로 쓸쓸히 공명하는 듯하다. 이민정

1) 플랑 세퀀스(plan-sequence)는 영화의 쇼트 구성 방법 중 하나로 한 신이나 시퀀스가 하나의 쇼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플랑 시퀀스 안에서 시간과 공간은 중단 없이 연속된다. 한 번의 촬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편집이 필요 없지만 쇼트의 길이와 공간의 깊이, 프레임 안에서의 등퇴장 및 이동,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함윤정

가덕도에서 생활하며 영화와 바다에 대해 생각한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비평 공모에 당선되며 글쓰기를 시작했다. badasal2@naver.com



# 극장가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



비수기로 분류되는 11월 개봉작 <서울의 봄>이 개봉 20일 만에 관객 수 700만을 돌파했다. 1주 차보다 2주 차 관객 수가 더 상승하는 등 입소문을 타면서 장기 흥행으로 천만 관객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5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가 <범죄도시> <공조> 시리즈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시장성이 검증된 아이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군다나 올해 영화계 주요 경향을 정리할 때 크게 두 가지, <엘리멘탈><스즈메의 문단속><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거미집><1947 보스턴><더 문> 등 올드보이들의 신작이 흥행에 참패한 현상을 꼽곤 하는데 <서울의 봄>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993년에 데뷔한 60대 김성수 감독이 연출했고 시리즈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한국영화 침체기와 함께 제기된 여러 징크스를 부순 <서울의 봄>은 산업의 반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 꾸준히 제기된 한국영화 위기론은 극장 침체가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그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었다. JTBC 예능 <최강야구>의 인기로 상승세를 탄 프로야구는 올해 관중 수 700만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열기를 완전히 회복했고, 공연시장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극장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극장 나들이가 통신사 할인을 받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가성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취미였다면, 팬데믹 특수로 OTT 플랫폼이 부상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티켓값 1만 5천 원을 지불 하면서까지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체재가 많아졌다. 홀드백 기간을 대폭 줄이고 OTT에 비싸게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영화 대작도 개봉 3개월만 지나면 넷플릭스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대다. 유튜브에서 볼 영상이 넘쳐 나고 '나는 지금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SNS에 인증할 수 있는 미술 전시도 많으며 마음껏 소리 지르고 취식까지 가능한 야구장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굳이 극장에 갈 마음을 먹게 하려면 영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میم은 영화를 보다 쉽게 선택하게 해주는 기폭제가 된다. 마치 SNS 맛집에 쉽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 초반, 젊은 틱톡커들이 영화 속 한 장면을 따라 하는 챌린지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1020 세대 사이에서 인지도 상승효과를 봤다. <서울의 봄>은 정우성의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감독과 다른 배우



들이 그의 옆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포토타임 영상이 숏폼 콘텐츠로 소위 대박이 났다. 황정민의 '전두환을 삼킨' 분장과 연기도 예고편이 공개된 순간부터 이슈몰이 했다. 시사화 직후에는 영화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심박수가 178 bpm까지 올라간다는, 이른바 '심박수 챌린지'가 지상파 뉴스까지 탈 만큼 화제가 됐다. 특히 심박수 챌린지에 동참하거나 최소한 이 유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장에서 직접 영화를 봐야 한다. <서울의 봄>은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과 배우들의 연기, 실제 역사가 주는 공분 등이 실관람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지만, 이를 가속화하는 외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 사례다. <스즈메의 문단속>과 <서울의 봄>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자발적으로 올라온 챌린지 영상이나 SNS 후기였다"고 설명했다. 문을 여닫는 퍼포먼스라든지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감정이 고조되는 명료한 구조가 영화를 요약하면서 유행으로 퍼지기 좋은 간명한 키워드가 된 것이다.

때문에 <서울의 봄>의 흥행은 3년째 시장을 지배한 한국영화 위기론에 몇 가지 실마리를 제안한다. 스타 배우를 캐스팅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성수기에 개봉하고 스크린을 독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과거 흥행 공식은 이미 무너졌다. 반드시 여름과 크리스마스 시즌, 명절을 노리고 개봉해야만 하는 당위도 약해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가 길다는 이유로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1947 보스턴><거미집> 세 편의 한국영화가 개봉을 결정했지만 당시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 <무빙>의 마지막 회였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은 없었다. 예상치 못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연달아 장기 상영에 성공하며 트렌드를 이끌기도 하는 시대에 12·12 군사반란 같은 '실패의 역사'를 다룬 영화가 총무로의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다. 심지어 영화의 성격상 기대하지도 않았던 온갖 'میم'이 만들어지면서 젊은 층에서 화제가 됐고 CGV 앱에 따르면 <서울의 봄> 예매 관객 중 55%가 20~30대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동시기 OTT 기대작이 없을 때 시장에 나오는 쪽이 화제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예비 관객의 호기심을 불러 모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유행이 역지스러워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것저것 재면서 소비를 결정하는 대중을 만족시킬 만한 완성도를 보장해야 한다. 영화 투자가 위축되고 제작 편수 자체가 줄어드는 등 극장 영화 산업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지만, <서울의 봄>처럼 기존 흥행 공식에 집착하지 않고 독심 있게 자기 페이스를 밀어붙인 작품이 성공한 것은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볼 만한 시그널이다. <서울의 봄>이라는 사례가 앞으로 영화를 기획, 제작, 홍보하는 영화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긍정적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영화평론가 임수연**

## 임수연

<씨네21> 기자.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어쩌다 보니 영화 전문 기자가 됐다. 기자는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지식을 잘 흡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산업 전반과 관객성에 관심이 많다. @im.sy.mi



# 여기 어디? 〈박하경 여행기〉 속 부산

박하경 여행기 <3부> 메타멜로

BUSAN

채널 콘텐츠웨이브  
오픈 2023.05.24  
제작 더램프  
출연 이나영, 구교환

동구



#04 일동빌라  
동구 망양로476번길 2

#04 일동빌라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부산항대교의 야경을 감상하던 박하경과 이창진. 갑자기 이창진이 사라진다.



크라운 하버호텔  
중구 중앙대로 114

#06 크라운 하버호텔



내일 또 우연히 마주쳐요! 네!

다음날 만나기로 한 남자 덕분에 당일치기 여행 규칙을 깨고 근처 호텔 숙소를 잡는다.

중구

#07 부산극장



언젠간 만나겠지. 영화는 계속되니까

극장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하고 그를 기다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반석서점  
중구 대청로63-1

#02 반석서점



'출구는 갱거루' 있을까요? 만화책이요

밀면집 문 앞에서 서로 부딪친 남자!! 박하경은 이 남자를 헌책방에서 다시 만난다.

#01 대성밀면  
중구 보수대로44번길 6

#01 대성밀면



둘? 비빔?

홀로 부산 밀면집에 간 박하경은 비빔밀면과 물밀면 사이에서 고민한다.

#07 메가박스 부산극장 본관  
중구 비포광장로36



대한슈퍼 #05

중구 용미길9번길 5



#05 대한슈퍼



그,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인생 자체가 삽질이에요

감쪽같이 사라졌던 창진이 숨을 활떡이며 다시 하경을 찾아온다.

자갈치역 #03

중구 남포동6가



#03 자갈치역



서울에는 왜 밀면집이 없을까요? 있나? 있는데 제가 모르는건가?

운명일까? 이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이창진을 지하철역에서 다시 만난다.

올해의 OTT 작품을 꼽아보자면 여러편이지만, 부산의 로케이션이 100% 활용된 매력적인 작품을 꼽자면, 단연 웨이브의 <박하경 여행기> 부산편일 것이다.

하경과 창진이 지나간 곳을 다시 되짚어 가보자. 혹시 아나요, 영화같은 만남이 있을지.



#11 복천박물관  
동래구 복천로 63

영화의전당 #09  
해운대구 수영광천대로 120

#08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구 우동

#10 비비비당  
해운대구 달맞이길 239-16

#08 해운대 해수욕장



메타멜로

10월의 어느 토요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에 도착한다.

#09 영화의전당



난 당신을 만났고 당신을 기억해요

영화제에 참석해 영화를 보는데, 뒷자석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이 남자를 의식하게 된다.

#10 비비비당



그 사이 뭐가 변한 걸까?

혼자 멍하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11 복천박물관



SF멜로요. 처음부터 멜로였어요

아외상영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두 사람. 엔딩크레딧이 올라갈 때 까지 대화를 나눈다.

부산 영화제에 영화를 보러 간 하경. 극장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남자와 밀면 집과 헌책방, 지하철역에서 계속 마주친다. 영화와 같은 이 만남, 장르는 미스터리일까 멜로일까?



# BFC NEWS

## 2023 부산영화기획전을 통해 만난 부산과 영화, 그리고 부산영화



지난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2023 부산영화기획전 <부산, 영화를 만나다>가 개최됐다. 2023 부산영화기획전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제작지원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부산 시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부산 시민에게는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 지역 영화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응원의 의미

와 상영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총 4편의 제작지원작을 선보였다. 8일엔 <검치호>(감독 이강욱), <모라동>(감독 김진태)이, 9일엔 <내가 누워있을 때>(감독 최정문), <해야 할 일>(감독 박홍준)이 상영됐다. 해당 작품들은 작품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갖추고 있어 상영 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극장 영화 관람이 많이 줄어든 요즘이지만 우연히 들른 극장에서 현장 등록을 시작으로 이틀간 네 편의 작품을 모두 관람한 관객, 함께 울고 웃으며 영화 상영 후 마련된 감독과의 대화(GV) 시간을 통해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모습들은 다시금 극장 영화 관람이 주는 힘을 상기시켰다. 부산과 영화, 그리고 부산영화의 만남의 장이 된 2023 부산영화기획전 <부산, 영화를 만나다>는 그렇게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공개예정작

<b>영화</b>	<소풍><파묘><크로스><검치호><모라동> <내가 누워있을 때><해야 할 일><대가족> <모럴헤저드><보스><야당><폭군> <한섬가이즈><행복의 나라><히트맨2>	<b>JTBC</b> <닥터 슬럼프> <b>tvN</b> <별들에게 물어봐> <b>넷플릭스</b> <스위트홈 시즌3><기생수: 더 그레이><살인자ㅇ난감> <승부><유쾌한 왕따><폭삭 속았수다> <b>티빙</b> <이제, 곧 죽습니다><빌런즈> <b>웨이브</b> <데드맨> / <b>디즈니+</b> <삼식이 삼촌><지배종> <b>애플TV+</b> <파친코 시즌2>
-----------	---	---

## 부산 찾은 대만 인기 드라마 <걸즈윈 시즌2>



대만의 인기 시리즈 드라마 <걸즈윈 시즌2>가 12월 18일과 19일 부산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연초에 수립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가 보여진 것이다. 먼저, <걸즈윈 시즌2>의 글로벌 프로덕션 업무를 부산 소재 제작사인 '영화사 손가락(대표 이준상)'이 맡았다. '영화사 손가락'은 다년간의 BAFA(아시아영화아카데미)경력으로 축적한 프로덕션 노하우와 글로벌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

도를 바탕으로 본격 프로덕션 서비스 사업을 출범시켰다. 부산영상위원회는 해외 작품의 로케이션 스퀴팅 시 숙박 지원 및 부산 제작사와의 프로덕션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부산 촬영 숙박을 지원해주는 '해외 영상물 로케이션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걸즈윈 시즌2>의 부산 촬영 확정 에 힘을 실었다. 내년 봄 방영 예정인 <걸즈윈 시즌2>는 여자 농구를 소재로 한 대만의 스포츠 드라마이다. 2021년 시즌1 방영 시 큰 인기를 끌며 대만 TV 영예의 시상식인 금중상에서 베스트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걸즈윈 시즌2>에서 부산은 가상의 부산 아시아컵 개최지로 등장한다. 이에 광안대교, 감천문화마을,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 등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한편, 부산 기업의 글로벌 프로덕션 서비스 진출 및 해외 작품 유치 강화를 목표로 한 부산영상위원회는 지금도 여러 해외 작품과의 촬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후의 글로벌 사업 성과를 더욱 기대케 했다.



부산영상위원회 앱으로도(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영화부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박형준 부산시장
편집인	강성규
편집책임	배주형
편집팀	박다슬, 김아현 TEL. 051-7200-387
사진	공정현, 김승의
발행처	(사)부산영상위원회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8층 TEL.051-7200-301 FAX. 051-7200-300
표지	영화 <서울의 봄>(2023) 제작현장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제작	김민정·디자인대훈 TEL. 051-898-0330

-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 ※ <영화부산>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 '해운대 바00006'으로 신고된 정보간행물입니다.
-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옮겨 실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부산영상위원회와 저작권자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 이 책은 <영화부산> 웹매거진(www.filmbusan.kr)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태블릿 PC 및 휴대전화에서 부산영상위원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 이 책에 실린 글은 부산영상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

